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Love To Receive



1 이 세상을 주인이 있습니다.

땅, 집, 자동차, 시계 등 모든 물건에는 주인이 있듯이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3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강에 다리가 없으면 한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2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맑은 물컵 속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컵 속의 물은 까맣게 변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도 죄로 물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4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천국 가는 길)

피가 부족한 사람이 수혈을 거부하면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방에 있는 사람이 창문을 열면 빛이 들어 오는데 열지 않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주세움교회에서 천국소망과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심겨진 교회 적용이 구체적인 설교 / 양육을 통한 제자화 / 지속적 거리, 방문전도 / 단기, 장기선교사 파송

행복이 피어나는 교회 현금 부담 없는 교회 / 힘든 성도 돕는 교회 / 봉사 부담 없는 교회 / 소그룹이 강한 교회

가정을 세우는 교회 가정복음화 돕는 교회 / 각종 가정세미나 개최 / 방과후돌봄, 학교 실시 / 복합실버타운 건립

찾아오시는 길

Map



※ 10년 타기 정비센터 구의점(현대캐슬) 2층

예배 & 모임

Worship & Gathering

예배 & 기도회		교 육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02:00	유초등부예배	주일오후 03: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05:30	청년부 모임	주일오후 03:00
수 요 기 도 회	오후 08:00	성경통독세미나	매 주 수 요 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08:00	초등부토요모임	매 월 토 요 일
장년부구역예배	구역별로~	중고등부일동학교	매 주 토 요 일

2020년 포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제 7 권 12 호

2020년 3월 22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 골로새서 2:6~7 ·



담임목사 : 박 희 재 (010-8759-6447)

서울 광진구 자양로 189, 대덕빌딩 2층 (구의동)

TEL. 070-8955-6447 FAX. 02) 456-6447

www.jooseum.org



오늘의 말씀

약속의 방파제

마태복음 26:47~56

박희재 목사

1. 고통의 쓰나미

오늘 본문은 “고통의 쓰나미”가 예수님께 몰려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성공만 하셨던 것과는 달리, 잡히시고, 재판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실패의 쓰나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2000명의 [유대인 쓰나미]를 만나셨습니다. 또한 유다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치게 되어 [배신의 쓰나미]를 만나셨습니다. 우리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패의 쓰나미, 국론분열의 쓰나미, 절망의 쓰나미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쓰나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의연하게 버티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2. 예수님의 힘

오늘 본문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당황하시거나 두려워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베어 버리자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도 있다”시면서 더욱 당당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당황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힌트는 본문 5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5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나온 것을 이야기 하시면서 자신이 죽었다가 3일 후 부활 할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지만,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갯세마네 기도를 통해 더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황하지 않으시고 넉넉히 이기고 계신 것입니다.

3. 약속의 방파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닷가라도 산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방파제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쓰나미가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안경]을 쓰고 다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람군대에게 둘러 쌓였지만 눈을 열어 그 뒤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본 엘리사의 하인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는 있지만 의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갯세마네 동산에서 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소방관의 기도

하나님,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하소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제 아내와 가족들을 돌보아 주소서

* 이 기도는 1958년 미국의 소방관 스모키 린이 출동한 현장에서 3명의 어린이들을 구출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온 후 책상에 앉아 쓴 시라고 합니다. 이후 '소방관의 복무 신조'가 되어 읽히고 있습니다.

3월 캠페인 “코로나19 진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수요, 금요기도회 한 주간 쉽니다. 성도, 국가를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건축

성전건축 작정헌금 계좌 국민 051001-04-173934 주세움교회

기도제목

[코로나19사태]의 조속한 진정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성전건축 / 성도직장, 사업장 / 정치,경제,통일 / 동성애, 이슬람, 불평등법 금지

해외 : 김대영(미국), 최은영(스위스), 김경환(호주)

군대 : 정연균(부산), 조민기(논산), 김지훈(철원), 시정보(인제)

2020 성경암송 12주차 [소망-4]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145:19)

주일 오전 예배

오전 11:00 사회 박희재 목사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배 부름 -----시18:1~2----- 다같이
※성시교독 -----12번-----인도자
※신앙 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경배 찬송 -----31장-----다같이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죄의 고백 -----다같이
사회 선언 -----인도자
감사 찬송 -----331장----- 다같이
대표 기도 ----- 박희재 목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 봉독 ----마 26:47~56---- 다같이
설 교 ---**약속의 방파제**---박희재목사
응답 찬송 -----546장-----다같이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헌 금 -----다같이
광 고 -----인도자
※마침 찬송 ---우릴 사용하소서---다같이
※강복 선언 -----인도자

※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면 앉으셔도 됩니다.

주일 오후예배 (오후 2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쉽니다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쉽니다

수요 기도회 (오후 8:00)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쉽니다

금요 기도회 (오후 8:30)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쉽니다

다음주 봉사자

오전예배기도 김문옥 장로
오후예배기도 김진순 권사
식 사 당 번 여 성 7구역
03월 안내 김문옥,신종남,유미라
03월 주차 시삼섭, 조성만
03월 헌금 김문옥,김종석,소숙이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박희재 · 전도사 곽정훈 · 장로 김문옥(시무), 김동천(은퇴)
· 반 주 정연지, 정은미, 강유미, 신혜진

주세움 구역예배

찬송 508장 대표기도 말씀 바울, 성령의 파트너(행20:17~35) 찬송 502장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성령님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직접 사역하지 않으시고 사도바울을 들어 역사하셨습니다. 사도바울이 어떻게 성령의 파트너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1. 목숨을 다해 충성한 바울

사도 바울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안디옥교회에서 성령님에 의해 부름 받은 후 자신의 모든 삶을 선교에 헌신했고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기 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사도바울은 사명을 위해 살았고 사명을 위해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각오를 가진 사람을 파트너로 사용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 염려를 주님께 맡긴 바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지만 바울은 자신보다 교회를 더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는 세 번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행여라도 이단이나 핍박이 이제 막 세워진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을 해치지는 않을까 염려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고 말한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회에 대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면 더 많고 더 양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가정과 직장, 개인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있는 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돌보심을 믿고 내 주변을 주님께 맡길 때 바울처럼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신앙과 삶이 모범이 되었던 바울

바울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 신앙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영향이 큰 만큼 그에 대한 반대와 핍박도 많았습니다. 특히 그가 한 곳에 교회를 세운 후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도바울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흠이 없었고 모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해와 반대를 이겼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과 삶을 갖춘 사람을 성령은 파트너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徐 侗 徐

1.신앙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사도바울의 모습 중에서 나에게 큰 도전이 되는 점은 무엇이고 왜 입니까?

3.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려면 내가 어떤 준비를 더 해야 할까요?

	장년부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영아·유치부	합계
03.08	온라인 예배					
03.15						

온라인 예배

구역	구역장	부구역장	재적	출석	성경읽기	기도회참석	전도대상자	구역 헌금
남성 1	김동천	정광주	10 명					
남성 2	김문옥	김용덕	11 명					
남성 3	최규범	신현철	6 명					
여성 1	박영란	권태분	5 명					
여성 2	김진순	김순덕	6 명					
여성 3	박미숙	신수진	4 명					
여성 4	노연순	이서은	10 명					
여성 5	신종남	조미선	6 명					
여성 6	양경숙	소숙이	4 명					
여성 7	강유미	김명옥	6 명					
합계	10명	10명	68명					

· 주일예배 전 운행 10:00(면목동)▶10:20(노론산시장)▶10:23(신양초)▶10:25(동자초)▶10:30(성자초)▶10:35(구청 앞)
· 주일예배 후 운행 오후 3시 교회 출발
· 새벽기도회 운행 05:13(신자초)▶05:16(CU앞)▶05:18(성자초)▶05:22(구청 앞)▶05:25(교회)
· 수요일기도회, 금요일기도회 운행 모임이 끝난 후 차량 운행 합니다.
· 해외선교 최원근 선교사(동아프리카), 백현두 선교사(필리핀 보홀섬)
· 국내후원 정영균목사(십자가의교회),송현호목사(푸른잔디교회)·기관후원 극동방송국,이단대책연구소(고신)